

BBS 자비의 전화 4돌

혜담, 송강, 계환스님 직접 진행 상담 청취자 바른 신행인도... 인기 여전



명파한 답변으로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방송의 상담프로그램 '자비의 전화' (P) 김종학. 방송 4년을 맞은 이 프로그램은 그간 불자들에게 단편적인 교리 해설에서 바른 신행의 방법까지를 안내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 왔다. 상담내용들을 묶어 목격담 상담집까지 펴내 출판가의 화제를 낳았으며 기록불교를 정법신행으로 이끌어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스님이 반값에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진행자와 상담을 맡은 스님이 함께 진행했으나 요즘은 스님이 오프닝에서 로딩 멘트까지를 다 맡고 있다. 그간 이 프로그램에는 성열, 혜담, 송강, 계환스님이 상담석에 앉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혜담, 송강, 계환스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진행을 맡은 스님 중 최고참인 혜담스님은 91년 가을개편 때부터 3년2개월째 마이크를 잡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제게 방송은 이타(利他)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고 말하는 스님은 월요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불자들을 라디오 앞으로 이끈다. 옹고 그릇의 확고한 가치기 준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불자들에게 항상 명쾌하고 밝은 길을 제시하는 혜담스님은 "마음자리를 밝히는 지혜로운 상담자를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려 한다"고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혜담스님의 바톤을 이어 받아 수·목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계환스님은 차분하면서도 가슴에 폭폭 와닿는 상담으로 피상달자뿐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처음에 방송진행을 맡았을 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3~4개월 하다 보니 신심이 나오기 시작했어. 질문이 많아져서 걱정이 됐지만, 질문에 대한 사전적인 해설보다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고민한다는 스님은 질문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예, 보살님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구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금요일, 토요일. 절에 찾아오는 보살들과 애기하듯 청취자들의 귀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전해지는 스님의 음성엔 상담을 요청해 온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 "방송포교를 통한 색다른 수행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송강스님은 청취자들에게 항상 성실함과 진정함을 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송강스님은 질문자와 상담자가 하나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도필선 기자)

「산사의 향기」 골든비디오상 차지 영상음반 대상서 「국토...」는 각본상



골든비디오 대상 수상한 '산사의 향기'는 불자를 위한 연행(言行) 영화로 산문, 주요 법기, 불보살의 의미,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예절,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등을 담고 있다. 또, SKC 각본상을 수상한 '이 세움과 함께 하는 국토문화순례'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갈두부라과 미황사, 대흥사, 고산 운성도의 고택 녹우당, 신비의 성 전도를 찾아 조성들의 지취와 얻을 쫓아 끝없는 순례길을 밝히고 있다. 국토문화순례는 앞으로 10권이 계속 출시될 계획이다.

94 대한민국 영상음반 대상에서 대정프로덕션 '산사의 향기'가 골든비디오대상, 동성프로덕션의 '국토문화순례'가 SKC 각본상을 지난 10일 수상했다.

「보현행원송이 애창곡」

월주스님 백팔가요출연 월주스님이 지난 8일 불교방송 '백팔가요'에 출연, 친근한 불교지도자의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성령 다가갔다. 방송에서 스님은 「보현행원송」과 배호씨의 「안개간 장충단 공원」을 애창곡으로 밝히고 백팔가요 진행자인 김홍국씨와 이미지씨의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주스님의 출연은 진행자 김씨가 방송을 통해 "신임 총무위원장 스님을 백팔가요에 모시고 싶다"고 말해 이뤄진 것이다.

「석굴암의 신비」금상 MBC 작품경연대회

94년 석가탄신일 기념특집 다큐멘터리 「석굴암의 신비」(PD 공재성)가 지난 2일 제9회 MBC 계열사 TV작품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대구 MBC가 92년 12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 제작한 「석굴암의 신비」는 이미 지난 5월 방송위원회가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석굴암의 신비는 석굴암의 구조과목을 통한 과학적 고증이나 자연환경을 잘 활용했던 민족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불교예술의 면모를 잘 살려 영상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불교」등 3편 수상 보리방송 문화상

지난 15일 부산 통도사 포교원에서는 제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진영상의 「한국불교」, 부산 MBC의 「산해대본산 범어사」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주 KBS의 「민족의 선각자 백용성 스님」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푸근한 법당 어린이들은 신난다

겨울불교학교 문활짝...5백여 사찰·포교당 한자·영어·참선·서예 배우며 방학을 즐겁게

◇겨울방학 어린이 행사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한 수련회 및 겨울불교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개설했다. 전국 각 사찰과 포교당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지도교사들은 전원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겨울불교학교」에서 벗어난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최종 마무리에 한창이다. 금년 「겨울불교학교」에서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은 한자교실, 서예, 영어, 민속놀이, 글짓기, 교리퀴즈대회, 풍물복각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어린이들이 단순한 불교배우기에 대한 실증을 쉽게 낸다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예년과는 달리 「겨울불교학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실내라는 한정된 장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결집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

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각 사찰의 지도교사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 전이 없는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겨울불교학교」, 「겨울어린이교실」 등을 통해 겨울방학을 어린이 포교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찰원사에서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는 이희명화 교사는 "이번 겨울불교학교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법회학습자료와 신간 불교지침서를 탐독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항상 부처님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사 이매숙 어린이 지도교사는 "작년에는 정진법회를 했으나 올해는 놀이중심으로 겨울불교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겨울불교학교는 부처님 고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한영우 기자)

Table with 4 columns: 사찰및 단체, 행사명, 일시, 문의처. Lists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winter holiday programs for children,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내가 꾸미는 부처님...」 어린이 학습교재 나와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발휘케 해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꾸미는 부처님 이야기」가 나왔다. 유치원생부터 국민학교 5~6학년생까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꾸민 「~부처님일대기」는 각 단원별로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어려운 단어와 문장의 뜻을 풀이하고 함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실었다. 또한 한자의 습득을 쉽게 하기 위해 각 단원에 있는 주요 단어 한자를 연습하게 해 어린이 법회교재로도 쓰일 수 있게 하였다. 선재마을 발간, 값 3천원.

창종 24주년 불사봉행 총지중 23일 만보사서

불교총지중(총리위원장 안효강)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전 만보사에서 창종 24주년 불사봉행을 거행한다. 이날 봉행불사에는 안효강 총리위원장을 비롯, 종단스승들과 신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창교절인 24일에는 전국사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팔리대 도서관 준공식 아마푸라종과 결연 3년 한국불교 여래종

한국불교 여래종(총무원장 법우스님)은 스리랑카 아마푸라종과의 자매결연 3주년을 맞아 스리랑카를 방문 상호우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석인왕종정 및 여래종스님과 신도 40여명은 지난 10일 스리랑카를 방문, 아마푸라종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문서 조인식을 갖고 팔리대내내 석인왕 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석인왕종정은 아마푸라종 최고 승원에 취임, 한국불교 상 절안식과 기념탑제작식을 아울러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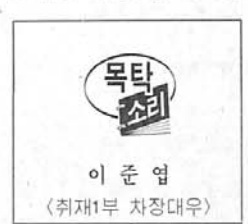
동방불교대 수련대회

동방불교대학 동계수련법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동안 마산 탑사에서 열렸다. 동방대학 한의예과 유아교육과 포교학과가 포함된 사물과 불빛, 천지화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 성지순례를 겸 한 철야정진을 거행했다.

신임 총무원장에 법은스님 선출 총화중, 분규종식 화합다짐

총화중이 9개월동안 지속돼 온 종단분규를 종식하고 총회와 집행부를 새로 구성, 종단화합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 대한불교 총화중 범종도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종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종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대범스님이 총무원장직을 자진사퇴함에 따라 새 총무원장에 김법은스님, 종회의장에 김일복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교육원장에 김대평스님, 감찰원장에 장기정스님, 호계원장에 주인현스님, 포교원장에 김남일스님, 문화원장에 유봉열스님등 총화중을 이끌어 갈 6인장과 중앙총회의원 22명 이 전원 새로 선출됐다. 새 총무원장에 선출된 김법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창종 이래 지난 30여년간 총화중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 집행부와 합심해 종단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화중은 지난 3월부터 전남정스님의 정화추진위원회 촉과 이날 총무원장을 사퇴한 장대범스님총과의 마찰로 인해 중단 업무가 마비되고 맛고소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12월로 국적인 합의를 통해 종단화합이 이뤄졌다. 구독신청: 737-8881

자들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성지의 참배객은 대부분 한국불자들



이준엽 (취재1부 차장대우) 한국 성지순례단은 붕(?) 이견만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반바지에 티셔츠, 등산용 조끼를 걸친 스님. 현지어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품을 놓고 참배하는 신도. 영주나 기타 불교 용품을 무분별하게 싸들이는 불자. 세계 각지의 불교

도들이 모이는 인도의 불교 유적지에서 불쌍 사나운 모습의 한국 순례단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지를 보호하고 있는 현지인은 대부분 힌두교도로서 이들은 한국 순례단에게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시금을 거둔다고 하니 한심스럽기조차 하다.

성지순례는 곧 수행의 일환이다. 겸손하고 경건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신심을 돌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돈자랑의 기회로 삼거나 부처님상을 다녀 왔다는 기쁨으로 자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해외의 성지에서 붕(?)으로 통하는 한국순례단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될 일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Gyeongganggyeong' (금강경) sutra.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sutra book,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Buddhist Cultural Service' (불교문화서비스).